

무역 금리 환율

안팎서 동시충격뎀, 블랙스완 현실화될 수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비온드 스톰

⊕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이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사설)

공포인가. 두려움인가. 요즘 세계경제를 두고 1930년 대공황이나 2002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무역전쟁 때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역사가 보여주듯 보호주의는 궁극적으로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의 말까지 회자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경기 침체로 난국에 처한 각국 정부가 앞다퉀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폐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 경기 침체→실업 급증→소득 및 소비 급감→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경기침체 심화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모두들 위기가 말한다. 한국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경기침체→실업 급증→소득 급감→침체 심화’ 악순환 야기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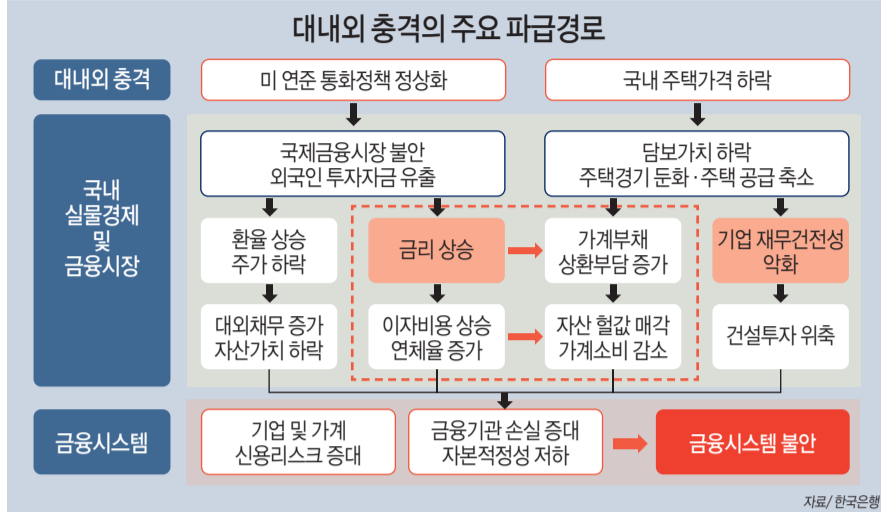
◆위기는 한꺼번에 온다

한국경제가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무역전쟁은 시작일 뿐이다. 저금리시대의 종말이 예고되면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보호 무역 정책의 역효과(교역국과의 통상마찰, 교역량 감소, 세계경기 위축 등)는 상당하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보호무역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강화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약탈적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시화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또 다른 복병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1.25%~1.50%로 상단이 한국과 같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즈 등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미국이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2.25~2.50%까지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기업들은 금리발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걱정이다.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그만큼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원이 분석한 결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였다.

이 연구원 박정용 연구원은 “수익률 변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환율 변동성, 절상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5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그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 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중국의 행태도 여전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촉발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세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과 지난달 초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정책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가격 인상 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韓, 낮 놓다간 과거 전철 밟는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체력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도 여전하다.

한국 국가 신용등급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로 두고 있다. 2007년 말과 비교하면 무디스와 S&P 모두 3단계를 올렸다. 피치는 1단계 올린 ‘AA-’ 등급이다.

1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3957억5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기준 경상수지는 총 784억6000만달러로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대외 채무의 질도 아직은 괜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달러로 전년보다 296억달러 감소했다. 전체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 증가한 29.8%였다. 한은은 “단기외채 비중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한국의 단기 지급 능력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물음표를 다는 곳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 확대, 생산성 향상과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6달 만에 감소한 6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 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외화를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달러 강세에 외환보유액 4개월 만에 주춤

지난달 외환보유액 3948억달러 전월 대비 9억6000만 달러 줄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948억 달러로 전월 3957억 5000만 달러 대비 9억6000만 달러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올 1월까지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석 달 연속 증가하는 등 4000억 달러에 육박한 바 있다. 다만 지난 달 외화자산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감소로 전환했다.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90.6으로 전월 89.1 대비 1.7% 상승했다.

유가증권이 3652억2000만 달러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197억 3000만 달러(5.0%), 금 47억9000만 달러(1.2%),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34억2000만 달러(0.9%), IMF포지션 16억3000만 달러(0.4%)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1위는 중국 3조1615억 달러, 2위는 일본 1조2685억 달러, 3위는 스위스 8363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이봉준 기자

해외여행은 늘고 관광객은 줄고

1월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 최대’

유커 감소 등 여행객 급감 영향
경상수지 흑자규모 4년 만에 최저

지난 1월 서비스수지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국내를 찾은 외국인인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호조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상품수지 흑자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인 44억9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37억7000만 달러 적자 이후 1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여행수지가 21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 17억9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해외출국자 수는 28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였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입국자 수는 95만6000명을 기록, 같은 기간 21.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출국자 수 증가율이 최근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며 “원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81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77억3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커졌다. 수입이 19.5% 증가하며 439억6000만 달러, 수출이 16.9% 늘어 52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6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 동월 53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흑자 폭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4년 1월 18억7000만 달러 이후 4년 만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41억1000만 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 내국인 해외투자가 14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2억6000만 달러 늘었다. /이봉준 기자 b355ae@

뉴시스 그래픽